



불기 2548년  
봉축 준비 현장 대구 전통등 제작강습회



대구지역 10개 불교단체가 전통등 제작강습회에 참여해 총 5종의 전통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고 있다.

## “초파일이 기다려져요”

“잘 잡아가며 묶어주세요. 꼬리가 올라가게...”  
4월 24일 중구 대봉동 진각빌딩 1층에 모인 대구 불자들은 연꽃, 법륜, 목어, 범종 등 각종 전통 장엄등 제작에 여념 없다. 대구불교총연합회(위원장 지성)가 대구에서 첫 번째 전통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이번 강습회에는 사원주지 연합회를 비롯, 태고종, 진각종, 대구불교대학, 동화사 청년회, 대광맹인복지회 연꽃봉사단, 불비나유치원 교사, 보현사 화성회 등이 참석했다. 대구 불교계가 총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명을 한 팀으로 해서 총 10개 팀이 전통등 만들기기에 들어갔다.

와자지결,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리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장인이 된 듯 촛불의 열기를 이용해 대나무를 자연스럽게 휘는가 하면, 한 칸에서는 대나무를 곧게 펴고 있다. 각목을 잘라 기초뼈대의 중심을

세우는 거사님, 안경을 코끝에 걸고 열심히 자의 눈금을 세는 보살님까지 사부대중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이다.

“너무 재미있어요. 부처님 오신 뜻을 환하게 밝힐 등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니, 더욱 즐거워요.” 최금숙 대구불교대 부학장회장은 전통등 만들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들었다. 전통등 강습생은 4월21일부터 예비모임을 갖고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첫 모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제법 대나무 다루기며 휘기, 빼대잡기 등이 손에 익었다.

둘째 날, 불이 잡혀가고 전통 장엄등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자, 강습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대구불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전통 장엄등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지역 불자들에게도 널리 제작법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 중단 구분안고 참가 “제작법 전수 받아 내년엔 우리 힘으로”

둘째 날, 불이 잡혀가고 전통 장엄등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자, 강습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대구불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전통 장엄등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지역 불자들에게도 널리 제작법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변함없어”

### 조계종 입장 재확인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기존 설치 반대 입장에 변함없음을 4월 27일 밝혔다.  
중앙종회는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영시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중앙종회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문제

에 대해 지난 2000년 9월 총무원 성명서, 2001년 조계종 환경위원회 및 하동 설계사 및 말사의 입장, 2003년 중앙종회 대정부 결의문 등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었다”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재확인하고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조계종의 입장에 추후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아침을 여는 집 독거노인 잔치 연다

노숙자 및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홀리스의친구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 22명을 모시고 5월 9일 ‘아침을여는집’에서 조촐한 잔치를 연다”고 4월 26일 밝혔다.  
홀리스의친구들은 2004년 2월부터 보문동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나눔운동을 펼쳐왔다. 남동우 기자

# “독립성 보장과 지속 지원을”

조계종의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승특별교구의 위상을 일반교구와 동일하게 정립하되 종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교구로 독립시키되 종단 지원체계를 갖춰야 군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29일 열린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앙종회 의원 동광 스님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물적·인적 지원의 지원과 후원이 필수적”이라며 “종법에 규정된 중앙분담금을 당분간 면제하고, 종단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종단은 군승의 승가고 시 응시자격, 수계, 법계 흡수 등의

##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공청회서 제기

시행에 대해 군승 활동을 특별히 살피고, 예비역 군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군승특별교구법 초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인 교육사령부 군승실장은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자격을 제한한 것은 승려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군승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군법사는 “특별교구라는 이름은 종단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사실상 현행 군포교 위원회 체제와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별교구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무원 기획국장 정병 스님은 “군승특별교구법에는 특별교구가 일반교구와 어떻게 다른 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교구와의 차이점과 군승특별교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말환 국방부 군승실장은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따른 과제로 군승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무국의 전문 인력 확충, 군불교신도회와의 관계 정립, 군포교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주지에 대한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승교구 주지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군승의 징계에 대해 종법과 군·사회법간 상충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최종안을 만들어 6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회암사로

### 양주시, 봉선사에 공문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의 소유권을 회암사(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말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4월 24일 봉선사에 보냈다.  
이는 봉선사가 회암사지 토지소유권과 유물 소유권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양주시에 전달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양주시는 회암사 소유 토지 3천 8백여평이 포함된 회암사지 1만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암사 주지 직인이 아닌 개인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매입하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동의와 중단대표자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회암사로

전통사찰보존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선사 측은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공문 상에서도 예전의 입장을 반복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회암사지 맷돌과 석조 2점 등 회암사 소유 땅에 위치한 문화재와 회암사지 부도담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양주시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암사지 부도담 소유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에는 회암사 소유로 기재돼 있으나 경기도가 1970년 발간한 <지정문화재대감>에는 소유주를 밝혀놓지 않아, 문화재청과 양주시 사이에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오유진 기자



콜롬버스 시네마10 김덕일 관장이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에 보시금을 내고 있다.

## ‘나눔의 집’ 2호점 광주에 개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헌혈증서를 모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이 탄생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4월28일 광주 콜롬버스시네마10 본관 3층에서 ‘나눔의 집’ 2호점 개설 기념식을 갖고 모금에 들어갔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장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이어가기 운동’에 동참한 콜롬버스시네마10 김덕일 관장은 “백혈병으로 힘들게 투병중인 아이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헌혈증서 기증자에게는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지역본부는 개설식에서 영화관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

을 펼치고 헌혈 참여자에게 무료영화 관람권을 제공했다. 이종엽 기자

## 양양 진전사지 복원 62명 규모 전통방식으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홍사주지 마군은 4월 27일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에서 진전사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복원되는 건물은 20평 규모의 대웅전과 42평 규모의 요사채로, 전통양식으로 지어진다. 또 내년에는 종조전을 건립하고 선원도 복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변 정비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종조(宗祖)인 도의국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법을 선양했던 곳이다. 한명우 기자

## “조계사 주지 교체 초파일 지나 결정”

최근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교체 물러간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된 가운데, 교체 시기가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가닥이 잡혔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주지를 교체할 경우 각종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부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처님오신날 이후 단행하기로 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

계자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고 있어 재산관리인 주지를 직접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계사측은 “그간 조계사는 공개경쟁으로 투명한 총무행정의 모범을 보여 왔다. 총무원의 일방적인 주지 교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조계사 측은 “향후 상황추이를 지켜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 제 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 생명 · 평화 · 나눔을 위하여 -

살아있는 자연과 불교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오대산에서 걷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 생명 · 평화의 기원, 나눔을 통한 자비실천의 제험을 통해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1. 대회 개요

- 일 시 :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제한 3시간)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 걷는거리 : 약 10km
- 집결지 : 월정사 (5월 16일 오전 10:00까지 집결)
- 접 수 : 2004년 4월 25일 ~ 5월 16일 오전 10:30 □ 접수처 : 국립공원 매표소와 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 후 원 : 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불교라디오 춘천방송,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MBC 원주, KBS 강릉,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2. 참가인내

- 참가자격 : 나이제한 없음(가족동반 환영)
- 참가비 : ●일반인: 10,000원 ●대학생이하 및 10인 이상 단체: 5,000원  
●참가자에게 기념품(티셔츠, 버튼, 풍선) 지급 ※ 참가비용은 장애우를 위해 사용함.
- 입 금 : 농협 313065-55-000880 월정사
- 신청방법 : ●인터넷 - http://www.woljeongsang.org  
●우편 및 방문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연등축제단  
●전화 : (033)332-6661-6 / FAX: (033)332-6915

### 3. 코스 및 준비물

- 대회코스 : 월정사 → 전나무숲길(생명의 숲터) → 반야교 → 상원사 선재농장 → 오대산(나눔의 거리) → 상원사(평화의 기원)
- 준비물 : ●복 장 :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이 좋으며, 자켓, 모자 등 필요 ●신 발 : 워킹화 또는 경등산화  
●편의식 : 빵, 초코렛, 초코파이, 칼떡, 생수, 우유, 음료, 과일 등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기 타 : 쓰레기봉투

## 「천년의 설레임, 함께 가는 중국 문수성지 순례」 동참

오대산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신라 선덕왕 12년(643년)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중국 오대산과 1,400여년만에 자매결연을 통해 수행교류 등을 확대하여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을 대중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대산 월정사 문수성지 순례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중국 오대산 문수성지 일대를 순례할 예정이오니 불자들에게서는 많은 동참바랍니다.



### 다 음

- 방문일시 : 불기 2548(2004). 6. 24 ~ 29
- 동참금액 : 91만원(개인소요 경비, 여권발급비용, 한국내 이동경비 불포함)
- 입금계좌번호 : 313065-55-000325 농협 / 예금주 : 오대산 상원사
- 준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및 서류미감 : 5월 31일
- 문 의 처 : 오대산 상원사 총무소 (☎ 033-332-6666)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후 원 : 오대산 월정사 신도회, 중국 산서성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산서성 여유국 등

불기 2548(2004). 4. 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합장